

'예술의거리 조각상들' 애물단지 전략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설치된 조각상들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4월 오전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입구, 중앙초등학교 담벼락 인근 88m 구간에는 조각상 18점이 세워져 있다.

이 조각상은 지난 2011년 동구청이 4억원을 들여 '조각의 거리' 사업 일환으로 작가들에게 의뢰해 제작했다.

애초 옛 전남도청 앞부터 금남로 공원까지 양쪽 인도에 설치했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보행로 확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광주시가 지난 2016년 4월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하지만 이설 이후 조각상들은 예술작품이 아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실제 조각상 18점은 1~4m 간격을 두고 변압기, 벤치 등과 질서 없이

벤치 등과 질서 없이 놓여 쓰레기로 덮여

광주 동구 "포토존 기능 어려워 이설 필요"

이 놓여있으며 온갖 쓰레기 더미로 덮여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워져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조각상의 존재마저 지워버리고 있다.

공방을 운영하는 우영희(62·여) 씨는 "관리 없이 방치돼 거리미관을 해친다"며 "밤에는 조명조차 없어서 있는 조각상을 보고 무섭다는 시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통의상점 주인 신진아(51·여) 씨는 "자갈에 세운 차량이 조각상을 가린다. 불법주정차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각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아무런 관리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조각상을 옮겨놓았다는 비

판도 제기되고 있다.

나상욱 전 광주미술협회장은 "자문위원들이 이설 시공업체 측에 주변 잔디 조성, 이설간격 조성, 조명 설치 등을 건의했으나 좌절됐다"며 "현장에서 직접 보니 조각상 설치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도 "잡정 이설이기 때문에 작품대 방향, 작품간 간격, 작품 위치 등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각상 7점을 예술의 거리 곳곳으로 나눠 설치하는 방안을 상인회 측이 제시했지만 이설 대상 지역의 일부 건물주들이 반대하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다.

동구청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비담 조명 등을 설치해 예술의 거리 내 조각상들의 분위기를 되살리고, 겨울 기 좋은 밤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언제 옮겨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대한 투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라는 압초도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일단 조각상 간 거리가 비좁아 포토존으로서의 기능도 어려워 장소가 어디가 됐든 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민 간담회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가 돼야 이설 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대서양서 표류하던 남성 16일만에 구조

소형 낚시배를 타고 대서양을 표류하다가 16일만에 구조된 바하마 청년이 2일(현지시간)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은 뒤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의 성모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바하마의 나소에 사는 새뮤얼 모스 주니어(23)는 지난 1월 13일 길이 7m의 낚시배를 타고 비미니 항구에서 나소를 향하던 중 높은 파도를 만나면서 배의 연료가 떨어져 표류를 시작했다. 그는 다른 배에 의해 16일만에 지난 달 29일 발견되었고 웨스트 팜비치 해안에서 16km 떨어진 해상에서 구조되었다고 말했다.

모스는 그 동안 감자칩과 쿠키, 병에 든 생수를 먹으면서 12일을 버티어 냈지만 어느 날 높이 12m에 달하는 엄청난 파도가 배를 휩쓸고 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근소한 양의 먹을 것도 다 슬러내었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은 모스가 구조되어 미 해안경비대 비행기편으로 육지의 병원에 후송되어 왔을 때 전해질 수치가 위험수위 이하로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멕시코 밀입국자 300명 초만원 트럭서 구조

멕시코의 미 텍사스주와 가까운 해안지대에서 300명의 불법 이민을 태운 초만원 트럭 트레일러 두 대가 적발돼 위험한 상태에 있던 이민들이 구조되었다고 멕시코 당국이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멕시코 이민국은 이 날 새벽 국경지대의 타마울라파스 주 북부의 한 검문소에서 이 대형 트럭들을 정지시켜 실려있던 이민들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98명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멕시코로 온 외국인들이었으며 환기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물도 음식도 없고 움직일 틈조차 없이 코트와 담요를 둘러싸고 웅크린 채였다.

멕시코 당국은 이들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었으며 이들의 밀입국을 조직한 3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들은 자기들이 타마스코와 베라크루스를 거쳐 그 곳까지 왔으며 트럭들이 적발된 고속도로는 인간밀수범들이 순찰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루트라고 말했다.

트럭이 붙잡힌 타마울라파스주의 레이노사 시는 미국 텍사스주 남부의 맥앨런(McAllen)시 바로 건너편에 있다.

이란 경찰, 히잡반대 시위 연루자 29명 체포

이란 경찰 당국이 히잡(얼굴만 남기고 머리카락을 감싸는 스카프)에 반대한 시위 연루자 29명을 체포했다.

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란 전역의 여성들은 당국의 엄격한 이슬람 복장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히잡을 쓰지 않고 시위를 벌였다. 이 모습은 소셜미디어에 동영상과 사진 형태로 올려졌고, 여성 시위대는 보도 위에 서서 히잡을 흔들고 있다.

테헤란 경찰은 이들의 행동이 외국인들에 의해 자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된 29명의 시위자들은 사법당국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에서는 히잡 반대를 위해 집단적 시위 뿐만 아니라 1인 시위도 진행되고 있다. 1인 시위자는 테헤란 시내 등에서 히잡을 묶은 마대를 흔들는 것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최근에는 이에 맞서 이란 국기를 든 남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여성들에게 히잡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외국인 여성도 외출시에는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한다.

중 상하이 도심 차량 인도 돌진 18명 부상

중국 상하이 도심에서 차량 한대가 인도로 돌진해 2일 모두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베이징 칭넨바오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한 40대 남성이 승합차에 액화가스통을 싣고 기다가 황푸구 난징시(南京西)로 런민 공원 입구 근처에서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 중 3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차량에 난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한 목격자는 언론에 사고 당시 차량에 6명이 타고 있었고 가스통들이 실려 있었다고 전했다.



폭설에 꽃구경 나선 상춘객. 불계절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춘을 맞은 4일 오후 제주도 오라2동 월정사 입구에 맺힌 매화 꽃망울이 눈을 맞으며 영글아가고 있다.

경찰청 "지난해 불법폭력시위 발생 12건...역대 최소"

경찰청은 지난해 탄핵 관련 집회 등으로 인해 집회 참가인원이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이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총 집회 건수는 4만3127건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참가인원은 358만4441명으로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규모 탄핵 '촛불집회'와 보수단체의 '태극기집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건수 및 참

가인원은 2013년 4만3071건(223만 7682명), 2014년 4만5319건(233만 6937명), 2015년 4만7842건(231만 2542명), 2016년 4만5836건(526만 21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회 참가 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불법 시위는 12건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 불법폭력시위 건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이 몰린 2008년 89건에서 인기 말 2012년 51건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45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에는 35건을 기록했고, 대통

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본격화된 2016년에는 불법 시위가 28건으로 파악됐다.

불법 시위가 줄어든 만큼 사법처리되는 집회시위 사법도 줄었다.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804명, 2014년 4254명, 2015년 4216명, 2016년 4391명에서 2017년 1828명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주변 집회나 기자회견이 크게 증가한 점도 이전 정부와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39건에서 2017년 538건으로 1280%나 증가했다.

전국 찜질방 3개중 1개

소방안전 불량 여전히

소방청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이후 전국 찜질방에 대해 특별조사한 결과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와 잠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전국 찜질방 6474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선 필로티 주차장, 찜질방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비상구 및 피난통로상 장애물 설치·폐해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6474개소중 소방안전시설 불량 업소는 2045개소로 전국 평균 31.6%의 불량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59.6%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불량을 보였고 인천 56.6%, 강원 52.3% 순이었다.

특히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와 잠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및 잠금행위, 유도등 점등불량 및 미설치 등 피난설비에서 2364건이 지적돼 전체 5704건의 지적건수중 가장 많은 41.4%를 차지했다. 소화기 노후 및 미비치, 감지기 작동불량, 소화펌프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에서 1337건(23.4%)이 지적됐다.

뉴스

일반
건강검진

생체전환기
건강진단

영양
건강검진

임
검진

국가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건강진단률	발견된 암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	~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42%p 감소	18%p 감소

※발견되는 건강진단이 증가하니, 미리 미리 건강 챙기세요.